

월/요/광/장

민혜숙



10여년 전에 '꿈광이 꽃'이라는 소설이 화제를 끈 적이 있다. '동인문학상'을 받은 하성란의 이 소설은 밤마다 남의 쓰레기 봉지를 가져다가 관찰하는 기이한 인물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러다 관찰했다더라면 다이어트 중인 여자에게 생크림 케이크를 선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물한 케이크가 꿈광이를 피우며 쓰레기 속에 처박힌 모습을 보았다면 다시 케이크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쌍방의 게임 '소통'

김형경의 소설 '민동산의 하룻밤'에서는 아내가 아침에 남편을 깨우는 장면이 있다. 지각하겠다고, 오늘따라 왜 일어나지 않느냐는 아내의 성화에 남편은 간단하게 대답한다. '오늘부터 휴가야.'

이렇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아내를 집안에 있는 가구로, 남편을 생활비를 대주는 예금통장' 쪽으로 인식하는 한 진정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이투어질 수 없다. 정도의 차이도 있다. 한편에서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다른 편에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결국,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욕구 불만을 갖게 되고 가정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떠나게 된다.

지도자와 구성원,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가능할까? 사제 기간, 부부간, 부모 자식 간의 소통도 원만하지 못하데 하물며 대통령과 국민이 잘 소통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대통령의 얼굴을, 표정을, 대통령이 하는 말씀을 여러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구성원들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살피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즉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다'는 성의와 지혜가 요구된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장용기. 우리나라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옛날, 시골의 한 선비가 서울에서 거울을 사 가지고 왔는데 너무 신기해 남몰래 장롱 속에 감추어 두고 혼자만 꺼내서 보곤 했다.

기고 강민원.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과제를 던져 주었던 가정의 달 5월이 가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왔다. 지난 5월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절이었다면 6월은 그 사랑의 범위를 국가와 민족으로 넓혀 생각하는 달이기도 하다.

재판은 설득과 화해. 하지만, 거울을 들여다 본 시어머니의 눈에 는 늙은 할머니의 모습만이,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보는 거울에는 늙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선비의 아내가 거울을 들여다 보았지만 여전히 아까 젊은 첩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기며. 호국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달이다.

음식량 모자라 낭매 ... 출장뷔페 음식 표준안 만들었으면. 돌잔치나 결혼 피로연, 집들이 행사 등에서 출장뷔페 이용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음식량이 모자라 낭매를 보는 경우를 자주 본다. 며칠전 친지의 돌잔치에서도 똑같은 사례를 보았다.

'유괴 노이로제' 어린이 상대 교회선교 말아야. 일요일 아침 일찍 웬 남자로부터 우리 아이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요즘 유괴와 납치가 많은 세상이라 겁이 덜컥 났다. '누군데 우리 아이를 찾냐'고 물었더니 교회 주일 교사란다. 그러면서 아이를 교회에 보낼 생각 없다고 묻는게 아닌가.

시설 U대회 유치 실패 아쉽지만 도약 계기 삼자. 광주가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유치에 실패했다. 어제 새벽 열린 국제대학스포츠포럼(FISU) 총회의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러시아 카잔이 밀린 것이다. 그동안 유치단의 노력과 시민들이 보여준 높은 열기를 감안하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지구촌 축제 가능성 보여준 '함평 엑스포'. 함평군의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 엑스포'가 1일 막을 내렸다. 지난 4월18일 개막해 45일 동안 진행된 함평엑스포는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콘텐트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했고 환경 및 농업과 접목된 문화관광 축제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無等鼓. 집권 초기 정부의 인기는 치솟기 마련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념에 개혁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 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등 과감한 개혁으로 9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